

지수는 최고치인데 체감은 없다... 커지는 증시 K자 양극화

삼전·하이닉스에만 자금 몰려 이달 상장사 84%, 추가 하락·보합 개인, 코스피 약 33조 순매수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개인 투자자 박모(39)씨는 연일 오르는 코스피에도 웃지 못했다. 지난해 네이버에 집중 투자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서다. 박씨는 "일부는 중간에 팔아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다른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옮겨갈 데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팔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동안 버틴 세월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까봐 버티고 있다"고 한탄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다. 최근 7000 고지를 밟은지 7거래일만인 지난 15일(중증 기준)엔 8000도 뚫어냈다. 최근 중등 불안과 고물가(금리 상승) 등에 대한 우려와 단기 급등 부담에 숨을 고르고 있지만, 시중 뭉치돈은 증시로 모여들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25%(244.38포인트) 하락한 7271.66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 때

7141.91까지 밀렸지만, 5조6000억원가량의 순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의 기세에 7200선을 지켰다.

하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시에서도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가 큰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큰놈만 잘나가는 '코스피 디바이드(격차)'다.

◆대형주만 오른다

정말 내 계좌만 모르지 않은 걸까. 종목

별로 보면 증시 양극화는 뚜렷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877개 가운데 2429개(84%)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물렀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하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주가 상승의 과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상장 종목 10개 중 8개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서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특히 시가총액 1~100위 종목으로 이뤄진 대형주 지수는 15.69%(1~15일) 치

솟으며 중·소형주 흐름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지난 11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에서 "코스피 상장 종목의 29%, 코스닥은 36%가 올해 들어 하락하는 등 중목별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실적 전망치에 기반한 대형주 쏠림 현상의 심화를 꼽는다. 특히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8%까지 높아졌다.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코스피 전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업종 간 이익 격차 확대를 지적했고,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자금이 실적이 확실한 주도주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미들 반도체에 집중 투자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위주로 사들인 게 주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3조 원가량 순매수했는데, 이 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2조5378억원, 8조

1480억원어치 사들였다. 전체 순매수액의 63% 수준이다.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2021년 '동학개미운동(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열풍)' 당시 매입했던 종목의 손실이 워낙 큰 탓도 있다. 코스피 3000 돌파(2021년 1월 7일)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 6위였던 셀트리온은 현재 19위, 8위였던 네이버는 현재 29위, 10위였던 카카오는 현재 49위로 밀려났다.

반도체와 대형주의 편중 우려는 끊이지 않지만, 쏠림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이 상장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두고 과도한 자금 쏠림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증시 과열 속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금융사의 마케팅, 시장을 교란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zolkova@metroseoul.co.kr



첨단산업 투자 국민성장펀드 22일 나온다

반도체·AI·바이오 등 분야 투자 모집 규모 6000억, 선착순 판매



이역원 금융위원장

뉴스시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어서 투자 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과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FAQ)을 공개하고 판매 일정과 가입 방법,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공모펀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접투자 상품이다.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판매 첫 주

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판매 기간 중 첫 2주(6월 4일까지)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동일한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마지막 주에 전 국민에게 개방된다.

가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투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판매사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억원이며,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는 연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ISA 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전에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계좌 가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하는 판매사와 관계없이 수익률은 동일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한 번에 납입해야 한다. 또한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개인별 투자금의 20%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자펀드 운용사의 시금 투자금을 합쳐 펀드를 조성하고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맞춤형랩 4조 돌파

장기 투자·리밸런싱 전략 효과 글로벌 성장 산업에 선제 투자

미래에셋증권의 일대일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가 가입금액 4조원을 돌파하며 고객 자산관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맞춤형랩(지점운용랩) 가입금액이 4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평균금액은 7조 7000억원으로, 약 3조5000억원의 고객 수익이 발생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중심의 장기 투자 철학과 국내 우량 주식으로의 적절한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맞춤형랩은 단순히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쏠림을 경계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빅테크 등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우량 자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고객 경험 혁신도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는 프라이빗뱅크(PB)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계좌 개설부터 운용 전략 컨설팅, 랩어카운트 가입까지 윈스톱으로 지원한다.



예탁결제원,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과'

308개 기업... 투자유치 1190억 달성

혁신의 씨앗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기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금과 네트워크, 그리고 믿고 밀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비수도권 창업 지원 프로그램 'K-Camp'는 지난 6년간 지역 곳곳에 뿌려진 작은 아이디어들이 유망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져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수도권 혁신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K-Camp를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이 813명의 신규 고용과 1189억8000만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K-Camp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와 벤처투자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의 약 40%가 비수도권에 위치했지만, 실제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은 지역 창업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ESG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은 현재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기업 선발부터 킥오프 워크숍, 6개월간의 집중 멘토링, 중간 기업설명회(IR), 최종 데모데이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다. 참가 기업들은 기업 진단, 1대1 멘토링, 자본시장 교육,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K-Camp 참여 기업들은 164억 7000만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매출은 141억 5000만원 증가했으며 연구개발(R&D), 자본조달, 창업지원사업 선정 등과 관련한 사업제휴 85건도 성사됐다.

예탁결제원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성장 사다리를 이어주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협력해 우수 기업에 대표 벤처투자 플랫폼인 '넥스트 라운드(Next Round)'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KSD 지역벤처펀드 운용사인 로우파트너스와 연계해 후속 투자 가능성도 확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